

“오욕락의 세상은 한낱 ‘꿈’ 일 뿐이지요”

2월 마지막 날, 봄기운이 완연한 덕숭산(495.2m) 오르는 길은 유난히 산 새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다. 견성암을 거쳐 수덕사 능선(龍溪臺)에 이르자, 만공 스님이 좌선했다는 만공대(滿空臺)에 세워진 “나가정(那伽定)”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대룡삼매(大龍三昧)라 번역되는 나가정은 부처님의 선정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 선불교 종흥의 모태가 되었던 능선선원에서 안목 높은 수좌들이 옹과 같은 자유자재한 산매를 뒤얹음을 느낄 수 있었다.

능선선원에서 척달간 수좌들을 이끌며 함께 정진한 설정 스님은 어떤 동안에는 많은 구좌스님들이 동참해 어느 때보다 신심 나는 안경을 보냈더라 대화를 시작했다.

“해인(약천사 회주), 지하(前 중앙총회 의장), 천진(前 통도사 유대 스님 등) 구좌스님들이 귀감이 되어주었습니다. 매년 해제 때마다 구스런의 까리스탄에 의아품을 전달하고 있는 범종 스님은 정좌불외로 정진의 불씨를 지켰지요.”

어떤 안거에 동참한 25명의 수좌들은 수행과 보살행을 통해 이행(利行)과 사행(利行)이 원융무애한 일승(一乘)보살이 나아갈 길을 여실하게 보여주었다. 덕숭총림의 방장 아랫 어른인 수좌(首座)로서 안거수행을 이끈 설정 스님 역시, 원유유를 사고가 일어난 태안해변에서 스님들과 자원봉사에 나서는 등 이자(理事)에 걸림 없는 가풍으로 지도력을 발휘했다.

일과 수행이 들어 아닌 공부를 해 온 스님은 후학들에게 불조(佛敎)의 가르침에 대한 정경과 확고한 신심, 나도 깨닫고 증생도 제도하겠다는 보살심과 원력, 나를 버리고 모두를 위해 살겠다는 공심(公心)이 있어야 참된 출가생활이 된다고 강조한다.

스님이 13세부터 지금껏 들고 있는 “만법귀일 일귀하(萬法歸一 一歸何處) 회두는 금봉 스님이 준 것이다. 이 회두를 들 때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가?” 라고 들기 보다는, “그 하나는 무엇인가?”하고 의문을 가지라는 것이 만공 스님이 가르친 참구법이라 한다.

스님은 강원과 선방에서 두루 공부하고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이후에 나라의 국회의장적인 중앙총회 의장이란 막중한 소임을 맡기도 했다. 그야말로 이만과 사만을 넘나들며 쉬지 않고 달려온 세월이었다. 그러나 어린 시절 몸을 혹사하며 일하고 장년기에 수척사 주지와 종단 소임 등을 맡으며 괴로웠던 것이 직장안이란 병을 만들었다. 그 때가 중앙총회 의장 임기가 끝난 1998년이였다.

“병이 걸려 죽을 고비가 오자 선가(禪家)에 살면서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후회가 들었어. 자존심과 자괴감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랐기에 더욱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이 병이 전생의 과보라는 확신이 든 스님은 참회의 주력수행에 들어갔다. 아픈 몸으로 매일 7-8시간씩 현수다라니와 42수 진언을 외었다. 진정한 참회와 간절한 주력수행은 당시 한국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임이 기적적으로 완쾌되는 결과를 이뤄냈다.

“병고(病苦)를 극복하는 과정은 공부의 큰 전기가 되었습니 다. 일체가 환상이고 꿈이라는 사실이 뱃속 깊이 느껴져야, 일체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스님은 미국에서 도움을 준 스님과 불자들에게 보답하기 위



설정 스님(덕숭총림 수덕사 수좌)

1942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스님은 부친이 만공 선사에게 계를 받음 만큼 신심깊은 불자 가정에서 자랐다. 1959년 수덕사에서 월남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해인사 강원을 마친 뒤, 범어사 불암사 등 재방선원에서 수행했다. 30대에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원예학과를 졸업한 스님은 수덕사 주지, 조계종 개혁회의 법제위원장, 제11대 중앙총회 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덕숭총림 수덕사 수좌, 서울 회계사 회주를 맡고 있다.



번뇌를 끌고 살면서도 벗어나 사는 것이 ‘禪’ ‘일체유심조’ 도리 깨닫고 긍정적인 삶 누리야

출가생활 53년, 원로의원급의 법랍이 된 스님의 삶은 한국 현대 선종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님의 부친인 용희(龍義) 전병석(田炳石) 거사는 만공 선사의 가르침을 받은 수행자이자 한학자였다. 속세에 있으면 오래 못 산다는 여러 큰스님들의 이야기도 들어오던 터에 스님의 출가는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스님이 5세 때 만공 스님이 입적하자, 8년 후 수덕사로 동진출가하게 된다.

평생 선농겸수(禪農兼修)를 실천한 벽초·원담 스님으로부터 법의 소중함과 ‘평상심이 도’임을 배운 스님은 밭하고 밭배 하고 차 달이고 채소 키우고, 눈을 개간하는 등의 고된 율력을 통해 ‘노동선’을 이루었다. 당시 스님은 워낙 어려서 순수한 마음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일했으며, 수시로 ‘일삼매’에 빠져 잡념이 사라진 맑고 깨끗한 경지를 체험하기도 했다.

특히 벽초 스님은 밭을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일을 하며 철저한 백장가풍(百丈家風)을 실천했다. 방장에 추대되어도 법단에 올라가 법문한 적이 없었으며, 일체 사적인 소유를 용납하지 않는 철저한 무수유의 삶을 살았다. 원력과 공심, 위법방구(爲法忘軀)하는 심정이 아니면 어떠한 소임도 맡아서는 안됨을 배웠다. 사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고 하는 선농일치(禪農一致), 노선(勞禪)일치의 기풍은 간화선의 전통이기도 하다.

“일과 참선이 들어 아닌 간화선 전통을 대중에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노동 속에서 선(禪)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줘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분별·말상 없는 평상심(平常心)으로 살 수 있는 ‘무시선 무취선(無時禪 無處禪) 선’이 아닌 때, 전 아닌 곳이 없다’이 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해요.”

두 은사인 벽초·원담 스님이 노동 속에서 평상심이 도(道)인 가르침을 주었다면, 만공 스님의 또 다른 제자인 금봉 스님은 남카토운 선지(禪旨)와 선교일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해 2000년, 한국 스님들이 미국 현지에서 머물며 적용할 수 있도록 태광사를 청진했다. 승산 스님이 입적한 뒤, 스님은 국제선원이 있는 회계사 회주 소임을 맡아 외국인 스님들의 교육과 간화선의 세계화에 심혈을 쏟고 있다.

승산 스님 입적 이후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외국인 제자들을 보면서 스님은 스승의 소중함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 만공 스님으로부터 법을 이은 벽초, 금봉, 원담 스님 등 당대의 고승이 매일 세 살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공부하게 된 것이 더욱 다행스럽다.

“문중의 큰스님들을 모두 존경하지만, 일체로 자칫거리의 험난한 세상에서 망신 몸은 있고 중생을 위해 집안과 쌀을 보시하며 살아가신 수월 스님의 삶을 특히 존경합니다.”

스님이 따르면 경허 스님과 수월 스님이 하산하여 마을에서 흥장과 머슴노릇을 하며 산 것은 ‘깨달음의 자취를 완전히 숨기고(和光同塵)‘ 저자거리에 들어가 지니의 손을 드리우는 입전수수(入處垂手)의 삶이었다. 중생이 생각하는 진(眞)과 속(俗), 선과 악을 환속하 ‘벗어난 경계인 것이다.’

스님께 제자지를 위한 한 말씀을 청하자 ‘번뇌를 끌고 살면서도 번뇌를 벗어나 사는 길이 선(禪)이다’고 말한다. “세상의 일과 번뇌 속에서도 순수해지고 괴롭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번뇌와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있어요. 남더라도 누구나 이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 하려면 오욕락의 세상이 몸인을 깨달아야 해요. 번뇌가 진짜가 아닌 ‘환상임을 깨달으면 꿈은 견(巖)외(外)!’ 자가 됩니다.”

“세상을 쉽게, 편해 살지 않는다.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이자(理事)에 걸림 없는 보살행을 발휘한 스님은, 불자들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도리란 깊이 믿어도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밝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글·사진=김성우 객원기자buddhapla@daum.net

SHC 삼환종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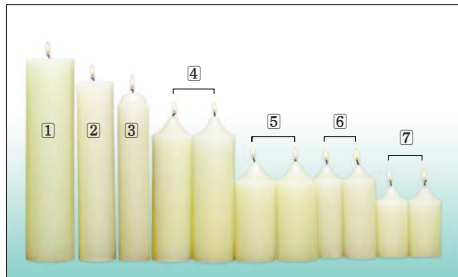
삼보귀의 하얗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숙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 ①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 선물세트
 - ② 밀납초공경정(7개入) 선물세트
 - ③ 밀납초원기둥 7.4φ × 30Cm ④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 ⑤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⑥ 밀납초 1호 공경정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⑦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
 - ⑧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약 숙향 양초
 - ① 원기둥 7.4φCm × 29Cm ⑥ 3호 4.7φCm × 13Cm
 - ② 돈타레 5.6φCm × 27Cm ⑦ 4호 4.7φCm × 10Cm
 - ③ 밀 대 4.7φCm × 25Cm
 - ④ 1호 5.9φCm × 20Cm
 - ⑤ 2호 5.9φCm × 14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아광 호랑이(산신) 70φ × 35cm
	
■ 아광 용초 70φ × 35cm	■ 원기둥 마패 7.4φ × 30cm 등신불 마패 4.7φ × 19.5cm

주소장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 주소 양초.net